

리우식 (주)경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뮤직갤러리 리홀 개관 개관 기념 '김준 재즈 캠프 라이브 콘서트' 개최

리우식 (주)경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인협 부회장)가 지난 3월 6일 성북동 누릉지백숙 3층에 조성한 뮤직갤러리 리홀을 개관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r.or.kr



1. 성북동 누릉지백숙 3층에 조성한 뮤직갤러리 리홀 2. 축하 화환과 메시지로 가득한 리홀 입구 3. 리홀 입구에 조성된 쇼룸
4. 빈티지 오디오 기기와 스피커가 설치된 리홀의 무대 5. 리홀을 계획하고 만든 리우식 대표이사 6. 리홀에서 음악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오픈행사에는 인쇄업계 지인과 친지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리홀 입구에서 뮤직갤러리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개관을 축하하는 수많은 화환과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으며, 방문객들은 5만여 LP판과 빈티지 오디오 시스템으로 구성된 뮤직갤러리를 둘러보며 감탄과 놀라움을 그칠 줄 몰랐다.

“앨범재킷은 세계 인쇄물의 역사”

리우식 대표이사는 “인쇄인이 되고 처음으로 작업한 인쇄물이 바로 지구레코드사의 LP판 Long-Playing Record 앨범재킷이었다”며 “이를 인연으로 지금까지 국내외 5만여 장의 LP판을 수집하고 뮤직갤러리 리홀을 개관하게 됐다. 표면적으로는

LP판 수집이었지만 내면적으로 세계 인쇄물의 역사를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틈틈이 소일하며 마련한 뮤직갤러리의 빛바랜 레코드판과 빈티지 오디오를 통해 추억을 되살리고, 따뜻한 차한잔 나누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뮤직갤러리 리홀은 오픈기념 행사로 3월 7일부터 9일까지 ‘김준 재즈 캠프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했다. 재즈 캠프에는 신관웅과 재즈1세대, 에이스 톤 프로젝트, 이정식 재즈쿼텟, 나호수 재즈쿼텟, 김준(보컬), 말로(보컬), 웅산(보컬), 박선기(보컬), 최용민(보컬), 유하나루(첼리스트), 표진호(보컬), 이규재(플루트), 캐빈(보컬), 유열(보컬), 임희숙(보컬), 강윤미(보컬) 등이 참여했다.